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청신호'

‘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익산 중심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법적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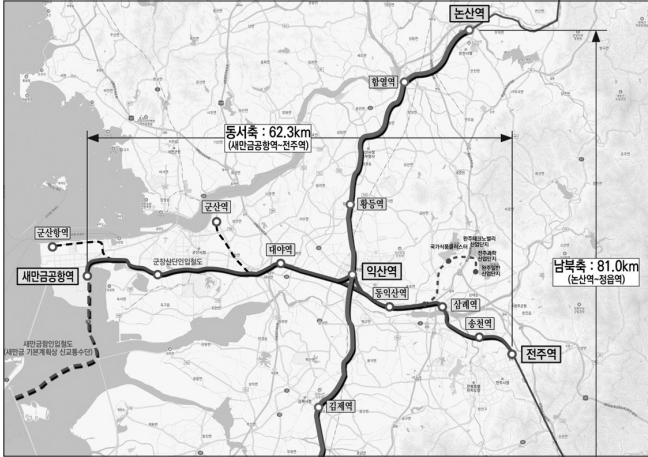
철도 도시 익산이 그동안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숙원 과제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국비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전북권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미 2018년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



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전철망을 통해 도내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익산 중

심 철도 기반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지와의 연계성 강화,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만학도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한동연 익산시의원, 함열여고 시니어반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은 지난 2일,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만학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은 만학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함열여고 시니어반은 평균 나이 69세(최고령 83세, 최연소 52세)인 17명의 학생들이 많은 나이에 불구하고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면서도

고령으로 인한 통학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장시간 통학버스 이용으로 인한 피로와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한동연 의원은 “만학도 학생들의 용기와 배움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만학도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또한, “학생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익산시 발전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만학도 학생들이 3년간의 학업을 건강하게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악취 저감 위한 간담회 개최

제1·2산업 환경기술인 대상

익산시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익산시는 3일 제1·2산업단지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악취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인근 신축 공중주택 1만 3,000여 세대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악취 배출 시설 신규 입주와 설치 제한 △변경 신고 관련 법 안내 △악취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등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시는 오는 5~10월 하절기 24시간 악취 상향치를 다시 운영하고, 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환경기술인의 능동적 악취관리 실천을 요청했다.

시는 5월부터 ‘익산악취24’ 실시간 민원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 및 단속을 강화 방침이다. 올해 산단 내 악취 민원 건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의 날 청년기획단 모집

25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9월 셋째 주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제5회 군산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획단’을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 주도형 행사로, 선발된 기획단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사에 접목해 △기획 △운영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청

년 문화를 공유·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선발된 기획단은 오는 5~10월 활동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군산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생활권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통시장 디지털 고도화’ 익산이 선도한다

익산 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선정… 온라인 판매·배송 기반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익산 구시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스마트한 전통시장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익산 구시장이 선정돼, 국도비 2억 4,0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인들과 함께 2022년부터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준비해 왔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익산 구시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중 최초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고도화 분야 대상지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2026년 2년간 최대 4억원을 투입해 익산 구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전담 인력을 지원받아 온라인 판매·배송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6개 청년 창업팀과 맞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2025 로컬허어로 육성사업’에 선정된 6명의 청년 창업가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번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아이템을 개발하고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2팀이 선정 공모에 참여했

으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분야 전문 평가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 6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창업 아이디어는 △현실화 할보리를 활용한 보리차 티백 △맥주효모 삼푸바 △박대 껍질을 활용한 클렌징 비누 △멜치 스낵 바 등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들의 기

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지난 2일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정된 창업기업과의 공식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창업가들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 △제품 브랜딩 △마케팅 △사업모델(BM) 구체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뜰은 사전교육도 진행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도울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보석보다 빛나는 보석함
익산보석박물관서 만난다

대통령의 선물부터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예술품까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보석함’의 이야기가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획전시 ‘보석함, 귀중한 것을 담은 함’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보석이나 장신구를 담은 용기인 ‘보석함’에 담긴 시대와 기술, 문화 등의 가치를 집중 조명한다.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1부 ‘대통령의 보석함’ △2부 ‘명장이 제작한 보석함’ △영상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작품 43점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매화 문양 서랍함은재 보석함’ 등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석함을 통해 외교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국내 유일의 화각(華角) 분야 국가무형유산인 화각장 이재만 장인의 ‘화각 보석함’을 만날 수 있다. 영상관에서는 장인들이 보석함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관람객들이 제작 과정을 생생히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체험도 운영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석박물관 누리집www.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77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개선공사 추진

군산시는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위험지역 개선공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함께 사고 발생 위험지역 합동 점검까지 마친 시는 6월까지 보안등 7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보안등 90개소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됐다.

공사 구간은 소룡동 일원(외하길~8길 구간)과 금암동 대명4길, 나운동 수송로 일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범죄 예방 및 시민 야간 통행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